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②

故知衆生本來是佛
고지중생본래시불
既生正信 須要解滋 永明云
기중정신 수요해자 영명운
信而不解 增長無明 解而不信
신이불해 증장무명 해이불신
增長邪見 故知信解相兼 得入道疾
증장사견 고지신해상겸 득입도질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라.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으면 모름지기 이해 또한 깊어야 한다. 영명스님은 "믿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이해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자란다"하였다. 그러므로 믿음과 앎을 서로 겸해야 빨리 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或曰初發信心 未能入道 有利益否
혹왈초발신심 미능입도 유이익부
曰起信論云若人聞是法已
왈기신론운약인문시법이
不生劫弱 當知是人 定紹佛種
불생겁약 당지시인 정소불종
必爲諸佛之所授記 假使有人
필위제불지소수기 가사유인
能化三千大千世界滿中衆生
능화삼천대천세계만중중생
令行十善 不如有人 於一食頃
영행십선 불여유인 어일식경
正思此法 過前功德 不可爲喩
정사차법 과전공덕 불가위유

누가 물었다. "처음으로 신심을 내었으나 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이익이 있는가."

대답했다. "〈기신론〉에 '만약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제불(諸佛)의 수기를 받게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안에 가득찬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善)을 행하게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잠깐동안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공덕은 앞의 공덕보다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많다"하였다.

又般若經云 乃至一念生淨信者
우반야경운 내지일념생정신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여래실지실견 시제중생
得如是無量福德 是知欲行千里
득여시무량복덕 시지욕행천리
初步要正 初步若錯 千里俱錯
초보요정 초보약착 천리구착
入無爲國 初信要正 初信既失
입무위국 초신요정 초신기실
萬善俱退 故祖師云 毫釐有差
만선구퇴 고조사운 호리유차
天地懸隔 是此理也
천지현격 시차이야

또 〈반야경〉에는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면 여래는 다 알고 본다. 이런 모든 중생은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천리를 가고자 하면 첫걸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하며, 첫걸음이 틀리면 천리가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위(無爲)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처음의 믿음이 발라야 하며, 처음의 믿음이 잘못되면 온갖 선(善)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조사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했는데 바로 그런 이치이다.

2. 진심의 다른 이름(眞心異名)

或曰已生正信 未知何名眞心
혹왈이생정신 미지하명진심
曰離妄名眞 靈鑑曰心 楞嚴經中
왈이망명진 영감왈심 능엄경중
發明此心
발명차심
或曰但名眞心 別有異號耶
혹왈단명진심 별유이호야
曰佛敎祖敎 立名不同 且佛敎者
왈불교조교 입명부동 차불교자
菩薩戒 呼爲心地 發生萬善故
보살계 호위심지 발생만선고
般若經 喚作菩提 與覺爲體故
반야경 환작보리 여각위체고

물었다. "이미 바른 믿음은 내었지만 무엇을 진심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대답했다. "허망을 떠난 것을 진(眞)이라 하고, 신령하게 밝게 보는 것을 심(心)이라 한다. 〈능엄경〉에 이런 마음을 밝혀 놓았다."

물었다. "다만 진심이라고만 합니까, 따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대답했다. "불교와 조교에서 내세운 이름이 같지 않다. 불교의 보살계에서는 심지(心地)라 했는데 이는 온갖 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요, 〈반야경〉서 보리라 한 것은 깨달음이 체(體)가 되기 때문이요.

김원각〈시인〉

깨끗한 믿음 내면 한량없는 복덕 얻어
첫걸음이 틀리면 천리가 다 어긋나

새아침 효란스님에 듣는다 수행한담

"새해에는 마음창고에

효란스님 〈오봉사 회주〉

약력
- 1918년 충남 예산 生
- 31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
- 43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졸업
- 46~65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문화사 강의
- 68년 동헌스님을 은사로 건당
- 회엄사 등지에서 안거 수행
- 78~83년 조계종 반야회 회장
- 83~8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 現 오봉사 주석. 고대한일불교 문화교류협 창립추진위원장
- 〈관무량수경 의역과 해설〉 〈불교의 전통신앙〉 등 편역 및 저술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인사부터 나누어야 할텐데, 인사보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백대복이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며느리와 같이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시장사람들 조차 두 사람이 싸우지 않으면 심심해 할 정도였습니다.

이 노인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스님, 며느리와 싸우는 병이 걸렸으니 병 낫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종일 부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싸우다가도 생각나면 '나무아미타불'을 했대요. 백일이 넘고 계절이 바뀌도록 했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한데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내가 왜 저 아이를 미워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후 장사도 잘 돼 음식점을 냈고, 어지간히 살려고 하는데, 이 노인에게 중풍이 왔어요. 병원에 누웠었는데, 아들 내외가 장사하니까 자주 들르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와서는 아들 며느리를 욕하면, "내 업이야. 남 탓할 일이 아니야"하고 말했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정법 운운하는데, 정법이 뭐냐. 글도 깨치지 못하고 시장바닥에서 살다 가신 이 할머니에게 있어요. 모두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 올 한해는 이 생각 가지고 삽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얻어 입고 산지가 8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면 나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원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작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바라는 곳에서 바라는 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을 시봉하는 승려의 신분이지만, 이것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려가 되었으며, 또한 내가 불교공부를 하고자 하여 시작했다기보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작용에 의해 나는 불교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막강한 힘의 작용에 의해 살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승려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깨치려 하면 안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했잖습니까. 나는 부처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중생들이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중생도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본뜻입니다.

중생들을 뒷바라지해서 성불토록 해야 승려도 성불합니다. 나는 고려 때부터 우리 불교가 쇠퇴했다고 보는데, 중생 위에 스님들이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만 해요. 스님들은 물론 재가불자들도 뭇중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족 · 직장동료 가까운 인연
그들이 모두 나의 業
그들을 귀히 여김은 선업 쌓는일

나는 13세가 정명(定命)이라는 이유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은 나의 생명연장을 위하여 불가에 출가시켰습니다. 수덕사의 만공스님이 내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덕사는 방학 때마다 내려갔지요. 머리만 깎고 생활은 서울에 와서 했으나, 내 마음속에는 '나는 중이다'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집이 예산서는 소문난 큰 부자였는데, 행랑채에 살며 우리 집 일을 보는 아버지 뻘되는 아저씨가 나를 대하며 '도련님, 도련님' 하며 존대를 해요.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때 불교가 무언지는 몰랐지만 만물이 다 자기가치를 지니고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법은 형무소에서 만났어요. 대학교(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다닐 때 조선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년3개월간 형무소에 있었는데, 다른 것은 볼 수 없었는데 꼬박 불교 책을 넣어주더라고요. 불교 책은 형무소에서 넣어주었는데, 보안과장이 스님이었어요. 거기서 불교공부를 착실히 했습니다.

가두어놓고 불서(佛書)를 읽혀서 나에게 불교사상을 주입시켰으며, 수십 년간 정법을 구도토록 하고 60세가 다 되어서야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내가 구하는 불법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나 지나고 보면 부사의한 자기의 삶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절대적인 힘의 작용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형무소에서 출감하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추방되어 소위 사상범의 수용소 격인 대화숙(大和塾)이라는 곳에 또 수용당했다가 병으로 고향인 충청도 예산에 가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시절에 형무소에서 3년간 불교공부를 한 것이 불교의 정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바탕이 되었고, 그후 나는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교육계에 몸담으며 불교를 선양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불교에서 염불문(念佛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흑성산 천불사
매월 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회 주 一古 起然
주 지 富佛 印鏡
신도회장 민병달 聖林
신도회원 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
전 화 : 0417)557-3223
0417)557-3506
F A X : 0417)555-6550

대한불교 조계종 불암사
회 주 태 정
주 지 일 면
신도회장 김보광명
거사림회장 임 인 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7
TEL : 0346)527-8345/ FAX 0346)554-0635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 일 면
광동종합고등학교장 김 교 남
광동여자고등학교장 윤 종 희
광 동 중 학 교 장 고 홍 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
TEL : 0346)572-0559

금강불교조각 연구원
원장스님 이 청 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6095번지
TEL : 051)972-3912, 971-2174
FAX : 051)971-3384